DAERYUN NEWSLETTER VOL.21
[대륜 뉴스레터]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무죄 이유는 '독수독과'?

증거와 자백이 있어도 무죄! '독수독과(　　)' 원칙은?

최근 법원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증거는 효력이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의 무죄 선고, 음주운전을 자백한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사안 모두 법원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1차적 증거는 물론, 이를 토대로 얻은 모든 2차 증거까지 배제하는 '독수독과(　　)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는 판결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형식적 요건을 넘어선 필수적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죄명은 다르지만 같은 원리로 무죄가 된 두 사안을 비교해봅니다.

NOTABLE CASES
대륜이 합니다

공동폭행 혐의에도 공동범 여부 다퉈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이끌어낸 사례

부당해고 신고당한 사업주, 사용자의 해고 동기 없음 입증해 구제신청 기각

부동산 개발 사업 중 불거진 사기 소송,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 무죄

대출 문자에 속아 계좌 정보 제공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입은 의뢰인, 불송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으나, 음주운전 무혐의로 경찰단계 종결

플랫폼에서 투자 정보 제공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위반' 고발, 자본시장법 불송치 결정

LEGAL INFORMATION
법-키피디아

내가 투자한 미술품, 사실 투자사기 미끼였다고? 아트테크사기 대응 방법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망인의 유언, 진정성 및 효력 확인 위한 소송 요건·절차

회사, 잘만 벌면서 갑자기 구조조정? 정리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과 입증 책임

'일하며 얻은 병 맞을까' 업무상 질병, 정확히 판단해 산업재해보상 받아야

INSIGTHS
언론 속 대륜

경기일보 등

고객 맞춤형 통합 법률 플랫폼 '대륜 아너스' 선보여

대륜이 상담 예약, 실시간 사건 현황 조회, 서류 제출 등을 모바일로 원스톱 제공하는 전용 앱 '대륜 아너스'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고객 중심 서비스로 분산된 소통 채널을 통합하고, AI 기반 맞춤 변호사 추천 및 법률 콘텐츠를 제공해 사건 진행의 투명성과 고객 편의성을 높일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TV 등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크로스보더 승계 솔루션 제시"

대륜이 복잡한 자산 이전 및 조세 환경에 대응하고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가업승계센터'를 출범했습니다. 센터는 유언·신탁 설계, 지배구조 개편, 상속·증여세 절세 및 해외 자산 승계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기업의 영속성 및 안정적인 부의 이전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서울신문 등

부당한 수임료 등으로 고통받는 '불량로펌' 피해자 무료 지원 시행

대륜이 허위·과장 광고나 부실 사건 처리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무료 구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허위 광고 수임 후 연락 두절, 계약 해지 후 정당한 환불 거부, 유사 전관예우 광고 등 불량 로펌의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구제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로리더

'LH·명문학군·탈세' 노리고…위장전입 처벌과 대처법은

과거 학군 목적이던 위장전입이 최근 부동산 부정청약, 세금 탈루 등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심각한 범죄로 변모하며 적발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 중 하나인 위장전입은 부정한 목적의 유무가 처벌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전문 강대희 변호사가 위장전입 처벌 및 대응법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CONTACT

김근수 경영총괄변호사 T. 070-5221-2805

조상수 경영총괄변호사 T. 070-5117-3709

신일수 최고총괄변호사 T. 070-5117-2950

김인원 경영총괄변호사 T. 070-7510-1044

박성동 경영총괄변호사 T. 070-7510-2012

연명흠 최고총괄변호사 T. 070-7510-2012

법무법인(유한)대륜

대표번호 1800-7905

법률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대륜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